

논문접수일 : 2014.09.20

심사일 : 2014.10.05

게재확정일 : 2014.10.28

평창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디자인개발 활성화

Cultural Tourism Product Design Development and Stimulation
using Cultural Resources of Pyeongchang

주저자 : 양순영

강원대학교 생활조형디자인학과 강사

Yang soon-yo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Living Art Design

교신저자 : 임혜숙

강원대학교 생활조형디자인학과 교수

Im hye-soo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Living Art Design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내용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문화관광상품의 특성
- 2.2. 평창의 지역적 환경과 문화적 특성

3. 평창의 문화관광상품 개발

- 3.1. 평창의 문화관광자원 현황
- 3.2. 평창의 문화관광 기념품의 실태
- 3.3. 디자인 소재 발굴 및 활성화
 - 3.3.1 디자인 소재 발굴예시
 - 3.3.2 디자인 활성화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인간의 사회 활동에 바탕이 되고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의 재생산은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의 일환으로 평창의 문화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찾아 관광기념품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을 활성화 하는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평창군 지역은 산악지형으로 인구분포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시청각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다소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전통으로 이어진 풍습과 문화유산은 다양하게 상존해 있다. 이러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기념품 개발은 향후 펼쳐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적인 행사 및 지역축제장과 관광지에서 지역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평창군이 지정한 관광특산품 판매장을 조사해본 결과 판매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농·특산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지를 기념하고 홍보의 역할을 하는 관광기념상품들은 앞으로 다가올 국제화 시대를 열어 나갈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이에 발 맞춰야 할 기념품 개발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역문화가 드러나는 소재를 찾아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차별화 되고 특성화 된 기념품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지역의 문화자원에서 상품이미지 소재를 찾아 보았다. 지역문화가 기반이 된 기념상품 개발은 관광 자원에 필수적이므로 이는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생산

성 증가로 연결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발전에 큰 이익을 주게 된다.

주제어: 평창문화자원, 문화관광상품, 평창관광기념품

Abstract

Cultural reproduction using cultural resources, the basis of our social activities, can bring new values of the future. This study was inspired by the need to develop cultural tourism products using the local cultural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imulate design development by exploring the cultural resources of Pyeongchang and utilizing it for tourist souvenirs with visual image.

In Pyeongchanggun, it is rather difficult to share visual and cultural arts, due to the wide population distribution as a mountainous region. However, the area has customs and cultural heritage with a long tradition. Developing tourist souvenirs based on the cultural resources will play a key role in promoting the local cultures at local and international festivals and tourist spots amid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s and other events.

At the tourist souvenir shops designated by Pyeongchanggun, the items were examined. Most of them were agricultural products and local specialties. Tourist souvenirs, which promotes tourist spots and holds the memory of sightseeing, serve as a medium that showcase local features. It is a crucial rol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us, tourist souvenir development is imperative.

This study is intended to stress that it is essential to develop differentiated, specialized tourist souvenirs through materials that showcase local cultures. To that end, this study has explored product image materials among the local cultural resources.

Souvenir development based on local cultures is essential to developing tourism resources. It is linked to boosting the productivity of local manufacturers,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Thus, souvenir development is highly beneficial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ach area.

Keywords: cultural resources of Pyeongchang, cultural tourism products, tour souveni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인들에게 관광은 소비의 문화로 바뀌어가며 정착되고 있다. 주5일 근무가 본격화 되면서부터 한국의 대부분의 관광지는 지역문화를 즐기고 현장 체험을 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지방 소도시들을 찾고 있다. 특히 평창지역은 자연 탐방, 레저 스포츠, 농촌체험 및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한국의 겨울스포츠의 시작으로 알려진 대관령일대를 비롯하여 평창전역은 각 읍,면 단위로 관광상품컨텐츠 개발이 활성화 되어 사계절 볼거리를 찾아 평창을 들리는 관광객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확정과 함께 평창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은 지역축제가 활성화 된 ‘대관령눈꽃축제’, ‘효석문화제’, ‘오대산문화축전’, ‘평창송어축제’, ‘평창더위사냥축제’, ‘평창메밀부치기축제’ 등이 열리는 곳을 방문하고 또한 사시사철 평창군 주변 유원지 및 관광지 일대에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들을 체험하고 관람한다.

이처럼 외적 내적으로 풍부한 관광콘텐츠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지역에는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된 관광기념상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평창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기념상품에 적용하여 차별화되고 가치 있는 상품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이는 관광지를 조사하고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을 찾아 본 결과 더 확연히 드러나는 현실이다. 평창군이 지정한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을 보면 대부분의 기념품들이 식료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이루어졌다. 현대인들은 기호와 선호도 다르며 특히, 외국인들에게 농산물은 자국으로 가져갈 수도 없으므로 관광기념상품으로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관광기념품의 약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다. 또한 관광기념상품 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모티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관광자원을 넓혀 나가는 것과 같이 문화적 요소가 기념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오랜 시간동안 기억하게 하며 홍보 역할까지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창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지역별로 조사하고 문화자원에서 시각이미지의 모티브를 발굴하여 지역문화가 반영된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자인과 공예에 종사하

는 관련업체들에게 지역의 문화적 요소가 들어간 새로운 관광기념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평창의 문화자원을 문화관광기념상품에 적용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자원이 시각적 조형성을 갖춘 현대적인 상품디자인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디자인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각이미지들은 기존의 전통공예 방식으로 상품을 제작했던 것에서 나아가 현대적 조형성을 갖춘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자원의 특성을 발굴 분석하여 모티브 소재를 찾아본다. 우선적으로 평창지역에서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힌 문화관광자원에서 지역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형태들을 선정하여 각각의 모티브 소재를 알아본다. 그리고 자연, 역사, 인물, 등 다양하게 상존해 있는 문화자원에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들을 발굴해 나간다.

연구 방법은 첫째, 평창지역의 자연, 환경, 역사, 문화, 유적 등 문화관광자원들을 각 읍,면 단위로 구분하여 이론적 배경을 조사한다. 둘째, 평창지역의 전국규모 축제로 열리는 ‘효석문화제’, ‘오대산문화축전’, ‘평창송어축제’, ‘평창더위사냥축제’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축제 행사를 조사한다. 셋째, 평창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기념품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과악을 한다. 넷째,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디자인 소재를 발굴하여 이미지 도안을 예시한다. 다섯째, 지역의 공예품 관련 제작업체, 지역특산물 제조업체, 디자인 관련 업체, 광고업체들에게 디자인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현재 제작하고 있는 관광상품에 지역이미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문화관광상품의 특성

문화상품이란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산업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최종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문화상품이란 제품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창출하는 것으로 새로운 상품개발 과정에서 과학기술로 대표되는 기능과 조형예술의 산물인 미적형태의 유기적인 조화를 꾀하는 고객의 총체적 만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산물이다.(매일경제연구소,1997,p14) 좋은 문화상품은 간결한 이미지로도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잘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문화상품이 그 지역의 브랜드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도시 및 중소 도시들의 기념상품디자인을 보면 지방적 특색을 갖고 있는 문화상품보다는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가 모든 도시의 관광기념상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관광도시인 경주, 전주, 제주 등지에서는 지역적인 특색이 담겨져 있는 상품 디자인이 개발되는데 비해 평창지역은 소규모의 군 단위 지역으로 기념상품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지역문화가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상품들은 지역의 생산품보다는 문양이나 패턴 활용에 있어 한국적인 전통문양의 모티브만 찾아서 대부분의 문화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현재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념상품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의 부족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해결해야 할 기념상품개발은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관광자원 속에서 상징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시각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하며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꼭 필요한 것으로 문화상품이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2. 평창의 지역적 환경과 문화적 특성

평창군은 강원도 총 면적의 8.7%에 해당하며 전국 군 중에서 3번째로 면적이 넓은 곳이다. 임야가 84%, 농경지 9.7%, 기타 6.3%로 강원도의 남부에 속하는 산악군으로 전체 면적의 약65%가 해발 700m 이상의 고원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해발 700m 지점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곳으로 사람과 동식물이 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이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평창군의 인구는 43,703명(2014년4월 평창군 조사)이 살고 있는 소도시이다. 평창의 심볼마크는 ‘물, 불, 바람’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징물은 ‘눈동이’ BI는 happy700이다. 자연 상징은 원앙, 철쭉, 전나무이고 주요 농산물은 감자, 고랭지채소, 파프리카, 옥수수, 당귀, 산나물이 채취되고 있다.

평창군의 행정구역은 1개 읍과 7개 면(평창읍, 진부면, 대관령면, 봉평면, 용평면, 대화면, 방림면, 미탄면)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지역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 11점과 지방문화재 25점이 있다. 무형문화자원으로 평창군 미탄면 한치동 청옥산 일대에서 마을 사람들이 산채를 뜯으며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평창아

라리, 평창군 용평면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악과 굿놀이로 전래된 둔전평농악놀이(강원도무형문화재 제15호), 평창군 대관령면 황병산을 중심으로 산간 전통민속 문화인 뱃돼지 사냥물이를 하는 황병산사냥놀이(강원도무형문화재 제19호)가 오래된 산악지역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자원으로 보존 계승하고 있다. 그 외 봉평 도리깨소리, 진부 목도소리, 월정사 탐돌이, 방림 삼굿, 대화 대방놀이가 평창의 민속문화로 알려지고 있다. 평창지역의 주요 먹거리는 산채정식, 메밀부침, 메밀묵, 메밀막국수, 곤드레밥, 민물고기매운탕, 올챙이국수, 대관령한우, 황태구이, 황태국, 송어회 등이 지역의 대표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다.

3. 평창의 문화관광상품 개발

3.1. 평창의 문화관광자원 현황

평창의 문화관광자원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평창지역을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광지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첫 번째는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과 올림픽역사가 들어서는 대관령면과 진부면 일대, 두 번째는 먹거리 촌, 펜션단지 및 문화체험이 활성화된 용평면과 봉평면 일대, 세 번째는 평창군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친화적인 대화면, 평창읍, 방림면, 미탄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1. 진부면과 대관령면 일대 관광지 및 문화자원

①오대산 국립공원 : 월정사, 팔각9층석탑, 전나무길, 석조보살석상, 적멸보궁, 상원사, 성보박물관 등

②대관령 목장지대 : 양떼목장, 삼양목장, 아기동물목장, 하늘목장, 사파리목장

③휴양림 및 계곡 : 국립두타산 자연휴양림, 수향계곡, 방아다리약수

④전시관 : 대관령스키역사관, 한국자생식물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⑤유적지 : 수향리사지3층석탑, 탑동3층 석탑

⑥종합유락시설 :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

2. 용평면과 봉평면 일대 관광지 및 문화자원

①효석문화마을 : 이효석 문학관, 가산공원, 충주집, 이효석 문학의 숲, 물레방앗간, 이효석생가 등

②자연, 과학 체험 : 허브나라, 로하스파크&와카푸카, 한국앵무새학교,

③휴양림 및 계곡 :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 금당계곡, 흥정계곡, 노동계곡

④전시관 : 평창무이예술관,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 이승복기념관

⑤유적지 : 팔석정, 판관대, 봉산서재

⑥종합유락시설 : 휘닉스파크

3. 대화면, 평창읍, 방림면, 미탄면 일대 관광지 및 문화자원

①휴양림, 계곡 : 평창강, 평창바위공원, 너운계곡, 동강

②전시관 : 평창동강 민물고기생태관, 평창문화예술관

③유적지 : 백룡동굴, 노산성, 평창향교, 유동리5층 석탑

위와 같이 평창군을 3지역으로 나누어 관광지별로 조사한 결과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이 관광자원이 더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접근성의 용이함과 기업 및 민간투자를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는 문화 이외에 즐기는 문화로서 레저 스포츠 체험이 평창지역 전역에서 행하고 있다. 계곡의 래프팅, 산야의 MTB, 트레킹, 패러글라이딩 등은 산과 계곡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축제 및 이벤트는 점차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평창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표 1]은 그 동안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들을 유치하고 실행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현재 상황리에 진행되는 평창의 대표적인 축제들이다.

평창지역의 축제와 이벤트	
	평창효석문화제 (봉평 메밀꽃 축제) 효석문화제는 매년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시작으로 10 일동안 봉평면 일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로 봉평이 지니고 있는 자연과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평창송어축제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라는 주제로 매년 12월 중순에서 2월초 까지 진부면 둔치에서 열리며 얼음 위에서의 송어낚시 체험과 겨울 체험행사를 한다.
	평창더위사냥축제 대화면 땔미공원에서 8월초 10일간 열리는 행사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의미로 물놀이 및 농촌 체험과 축제장 일대에서 캠핑체험을 한다.

	평창대관령눈꽃축제 대관령면에서 매년 1월초 10일 동안 열리는 행사로 눈조각대회 및 겨울 레포츠 체험과 더불어 은빛 설원을 즐기는 축제이다.
	대관령국제음악제 강원도에서 주최하며 7월 중순에서 8월초에 진행되는 행사로써 주요 공연장소가 평창 알펜시아 연주홀에서 진행되며 강원도 전역의 문화예술관에서 찾아가는 저명연주도 함께 진행된다.
	오대산문화축전 오대산 일대에서 매년 10월 중순에 열리는 행사로 불교 문화를 통해 생명, 명상, 치유의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표 1] 평창의 주요 축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평창지역의 주요축제는 [표 1]과 같이 자연, 인물, 역사,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지역주민 행사 및 농촌마을 단위의 소규모의 축제들이 이어지며 또한 대관령한우 축제는 올해 1회를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지역축제로 열리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 축제는 주변의 환경과 문화자원이 바탕이 되어 오감체험, 계절체험, 교육 효과가 겸비되어 단순히 놀이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동반된 축제들로 대중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축제로 이어지게 된다.

3.2. 평창의 문화관광 기념품의 실태

평창의 문화관광자원 현황을 살펴본바 평창은 21C가 추구하는 관광자원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사람이 생활하기 최적의 기압권을 갖고 있으며 힐링, 역사문화, 자연조건, 레저 스포츠, 올림픽개최도시, 등 관광지로서의 최적의 조건들은 갖추고 있다. 평창은 보고, 즐기고, 먹는 문화로는 이제 전국 어디에 놓아도 손색이 없는 관광문화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한 과제는 문화를 고품격화 시키는 것과 문화자원을 기념화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시기이다.

평창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관광기간 동안이나 축제행사 참여기간 동안은 즐거운 기억을 갖고 있지만 남겨지는 것은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고작이다. 특히 외국관광객들에게는 평창지역방문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므로 더욱 더 기념이 될 상품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래의 [표2,3,4,5]는 현재

평창지역의 관광지 및 축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들의 현황이다. 현황 조사는 1. 관광지, 기념관 2. 축제, 행사장 3. 평창군 지정 특산물판매장 4. 민간투자기업 으로 4종으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오대산 월정사 경내 관광기념품 판매장	
	
사진 2014년 촬영	
주요 판매 기념품	다포, 다기용품, 종 장식품, 향꽃이, 촛대, 벽걸이, 불상모형, 부엉이장식품, 클리어 파일, 불경 테이프·CD, 불교문예서적, 건강·힐링·자연치유 관련서적, 스마트폰 고리, 차량용 장식 걸이, 스마트폰 전자파 차단기, 참빗, 불구용품, 팔지, 주머니 종류, 목걸이, 책갈피 등
지역 문화적 요소 및 특성	오대산 일대에 있는 문화자원은 자연과 오래된 사찰로 불교문화와 관련된 행사 및 관람객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으므로 불교문예, 건강과 관련된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의 문화적 요소로는 국보 제36호인 상원사 동종의 비천상 이미지의 다포, 동종이미지의 책갈피 와 보물 제139호인 약왕보살의 클리어화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대산 성보박물관에서는 상원사동종에 새겨진 비천상과 당좌 연꽃문양의 탁본을 판매하고 있다.
이효석문학관 내 관광기념품 판매장	

	
사진 2014년 촬영	
주요 판매 기념품	메밀 식품류 (메밀차, 메밀베게, 메밀화분, 메밀과자, 메밀가루, 메밀국수) 당나귀 인형, 당나귀 목각인형, 열쇠고리, 머리핀, 머리끈, 메밀씨앗주머니, 목걸이, 장식품, 장식마차, 핸드폰 줄 등
지역 문화적 요소 및 특성	이효석문학관은 봉평 일대를 배경으로 쓴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을 집필한 이효석 작가(1907봉평출생~1942)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문학관 내에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기념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문학관 내 '카페 동'에서는 작가의 작품인 '메밀꽃 필 무렵' 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티브들이 기념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념품의 모티브로 사용된 것은 당나귀와 메밀꽃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목각제품과 금속제품, 켈트제품 등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캐릭터를 잘 살린 것으로 지역 문화적 요소가 잘 드러나는 기념품이다.
무이예술관 내 관광기념품 판매장	



사진 2014년 촬영

주요 판매 기념품	메밀차, 메밀쌀, 메밀가루, 메밀베게, 메밀꽃 그림, 메밀꽃 그림 부채, 메밀꽃 그림 엽서, 메밀꽃 그림 목걸이, 핸드폰 줄, 당나귀 핸드폰 줄, 서예작자, 서예액자, 서예엽서, 서예부채, 도자기 제품(다기세트, 찻잔, 접시, 컵, 향 받침, 화병, 촛대, 장식품, 메모꽂이, 한옥, 탑 등)
지역 문화적 요소 및 특성	무이예술관은 2001년 폐교스튜디오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개관하였다. 메밀꽃 작가이자 무이예술관 관장인 정연서 화백, 조각가 오상욱, 도예가 권순범, 서예가 소하 이천섭의 창작 공간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자 야외전시장과 실내전시장을 갖추고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메밀꽃의 고장인 봉평 무이리에 있는 예술관으로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소설이야기를 그림으로 스토리텔링한 그림 전시 및 그림 엽서를 판매하고 메밀꽃 그림 및 압화를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아트샵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 외의 기념품들은 작가의 창작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대관령스키역사관 전시장	



사진 2014년 촬영

주요 판매 기념품	전시장 외에 기념품 판매장이 없으므로 기념품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음
지역 문화적 요소 및 특성	대관령스키역사관은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점프대 내 메인 스타디움 2층에 있다. 스키의 역사 및 발전 과정과 전통스키 및 스키대회 입상자들의 상패 및 상장 등도 전시되고 있다. 한국스키의 발상지로 알려진 대관령스키장은 1953년에 건설되었고 1975년에 개장한 용평리조트는 동계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를 개최한 곳이다. 2009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주 무대가 될 알펜시아리조트 내 스키장도 개장하였다. 옛 선조들에게 전통스키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수단의 하나로 교통도구 및 수렵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9호 황병산사냥놀이는 전통 수렵문화를 그대로 잘 전수한 놀이문화로서 지역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대관령스키역사관에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기념품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전시장내의 전시품 및 역사적 의미를 잘 해석해 보면 지역문화를 소재로 할 모티브는 충분하다고 본다. 앞으로 빠른 시일에 기념품 제작이 시행되어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과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제작되어야 한다.
평창동강 민물고기생태관 과 백룡동굴 체험	



사진 2014년 촬영

주요 판매 기념품	전시장 외에 기념품 판매장이 없으므로 기념품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음
지역 문화적 요소 및 특성	생태관광모델마을인 평창 미탄면 마하리에 위치한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이다. 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 전시 관람 및 탁본 체험을 한다. 자연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평창의 청정자연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백룡동굴은 천연 기념물 260호로 지정 되었으며 천연동굴을 전문가이드와 함께 직접 탐험하는 것으로 수 억년을 간직한 천연동굴생태계를 탐험하며 즐길 수 있다.

〔표 2〕 평창군내 관광지 및 기념관의 관광기념품 및 문화적 특징



사진 2014년 촬영

주요 판매 기념품	농산물(감자,고추), 약초류, 장난감, 토피 어리(이끼공예)체험 및 판매, 펜시우드 체험, 우유, 치즈 체험,
-----------	---

지역 문화적 요소 및 특성	평창 대화면 땀띠공원에서 여름을 즐기는 테마로 8월초 열리는 지역축제이다. 옛 문화를 회상하는 삼굿 체험을 비롯하여 감자 캐기, 광천동물탐험, 송어맨손잡기, 캠핑체험, 민물고기잡기체험 등 시골 농가에서의 옛 추억을 되살리는 체험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	---

평창효석문화제 행사장 내 관광기념품 판매



사진 2014년 촬영

주요 판매 기념품	허브나라 허브차, 아로마향 미용제품, 향초, 차용품, 메밀나귀상품, 메밀식품, 메밀베게, 지역특산식품 및 약용식물, 산나물, 짬뽕공예품(지게, 짬신, 소쿠리, 망태기 등) 공예장식품, 목공예품, 켈트상품, 메밀꽃 압화, 메밀씨앗그림 등
지역 문화적 요소 및 특성	평창효석문화제는 소설속의 등장하는 아름다운 메밀꽃밭이 형성된 봉평면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로서 2014년은 16회를 맞이하였다.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적 요소를 잘 반영한 축제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제의 배경이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이므로 주요 기념품은 메밀꽃과 관련된 상품들과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나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평창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재배되는 자연식품들과 약용식품도 기념상품의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역의 농촌마을 어른들이 짬뽕을 이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짜는 짬신과 농가에서 사용하는 민속품들은 고향의 옛 정취를 느끼게 한다. 주변도시 강릉과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가들의 창작 공예품 및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소재로 한 공예 체험 및 판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평창송어축제 행사장 내 관광기념품 판매	
	
사진 2013년 12월 촬영	
주요 판매 기념품	농산물, 산나물, 약용식물, 메밀차, 허브 상품, 효소, 술, 대관령향태, 세계토속공예품, 약세서리 장식품 등
지역 문화적 요소 및 특성	평창송어축제는 진부면 둔치에서 열리는 겨울축제로 겨울 송어잡이 축제로는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은 축제이다. 겨울 놀이와 먹거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행사로서 만들기 체험보다는 놀이 체험으로 얼음위에서 즐기는 놀이와 송어잡이 체험이 주를 이룬다. 송어와 관련된 기념이 될 상품은 현장 소비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표 3〕 평창군내 지역축제장 관광기념품 및 문화적 특징

평창군특산품판매장	
	
사진 2014년 촬영	
주요 판매 기념품	메밀선식, 타타리메밀차, 도라지 생강 청, 쌀 조청, 메밀차, 오미자 제리, 머루 체

	리, 복분자 제리, 호박 제리, 오미자 크런키, 다레 크런키, 오미자 초코릿, 다레 초코릿, 메밀과자, 메밀라면, 메밀가루, 메밀국수, 메밀냉면, 감자국수, 옥수수, 쌀 호박엿, 인진숙 환, 헛개 환, 솔잎 환, 도라지 환, 산수유 환, 느릅나무 환. 홍화씨 환, 대관령향태, 곤드레 나물, 취나물, 카드지갑, 동전지갑, 장지갑, 다용도 주머니, 헤어핀. 목걸이, 팔찌 등
지역 문화적 요소 및 특징	평창군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지정한 곳은 3지역으로 봉평면, 대관령면, 평창휴게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매되고 있는 기념이 될 특산품들은 대부분이 식품들이다. 지역 문화가 깃든 메밀 제품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며 감자, 산채나물, 산과일 등 농특산품으로 가공 된 식품과 건강 보조식품들로 볼 수 있다.

〔표 4〕 평창군 지정 특산물 판매장 내 관광기념품 및 문화적 특징

용평리조트 내 관광기념품 판매장	
	
사진 2014년 촬영	
주요 판매 기념품	장식품, 약세서리, 모자, 신발, 가방, 전통공예품, 목공예품, 열쇠고리, 핸드폰줄, 주얼리, 인형, 장난감, 화장품 등
지역 문화적 요소 및 특성	용평리조트는 국제적인 동계스포츠를 여는 장소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방문도 많이 이루어진다. 용평리조트 호텔 내에 있는 기념품점은 한국의 전통적인 인형, 탈, 숯대와 같은 장식품들도 있지만 가방, 신발, 모자와 같은 패션 상품은 유명브랜드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디자인이나 재질은 공예전문 업체에서 생산한 국내 우수 공예업체의 제품으로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로 보인다. 기념품들은 한국문화를 나타내는 것은 다소 있으나 평창의 문화적 요소를 알리는 디자인 및 기념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
휘닉스파크 내 관광기념품 판매장	

	
사진 2014년 촬영	
주요 판매 기념품	허브제품, 향초, 아로마 제품, 허브 찜질팩, 허브차잔, 허브 배게 속,
지역 문화적 요소	휘닉스 파크는 동계시즌 이외에는 스키 슬로프 일부에 하늘정원(허브 조성)을 운영한다. 휘닉스 콘도 기프트샵의 주요 기념상품들은 허브관련 상품들과 양초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허브와 아로마 향제품들과 장식품들은 대부분 수입품들이 많고 지역상품으로는 메밀차와 압화공예품이 있다.

〔표 5〕 동계올림픽경기가 열리는 리조트 내 관광기념품 및 문화적 특징

위와 같이 평창지역의 관광지, 기념관, 축제 행사장, 평창군지정특산물판매장,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리조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기념품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기념품들의 종류가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기념품으로 변화를 보이는 무이예술관은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므로 문화적 특성을 보이며 용평리조트의 경우는 기념품들의 종류는 다양하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소재가 된 것은 현저히 찾기 어려웠다. 특산물 판매장은 평창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약재류를 판매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김치, 장류, 주류, 메밀식품, 등이 주요 관광상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평창지역의 리조트 기프트샵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관광기념상품은 주얼리, 휴대폰 장식류, 액자, 인형, 촛대, 정리함, 부채, 엽서와 같은 악세서리·장식품류와 가방, 파우치, 손수건, 모자, 넥타이, 마스크, 양말, 장갑, 신발, 의류 와 같이 평창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판매하는 상품들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3.3. 디자인 소재 발굴 및 활성화

3.3.1 디자인 소재 발굴 예시

평창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기념품에 적용할

모티브를 설정하기 위해서 평창의 자연 환경, 문화 풍속과 유적에서 시각화 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찾아본다. 모티브 발굴은 첫째, 관광지마다의 특성화 된 자연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소재를 발굴한다. 둘째, 평창의 전래되는 이야기 속에서 소재를 발굴한다. 셋째,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축제행사를 중심으로 소재를 발굴한다. 상품디자인 이미지 소재를 [표 6]과 같이 자연 환경, 문화 풍속, 문화 유적으로 나누어 이미지 소재를 분류하였다.

평창의 자연 환경 소재
대관령 눈꽃, 평창 송어, 동강 민물고기, 마하리 어름치, 방아다리 약수터, 대관령 목장, 양, 한우, 젓소, 풍차, 전나무, 아생화, 허브, 메밀꽃, 당나귀, 박쥐, 동굴 중유석, 멧돼지
평창의 문화 풍속 소재
물레방아, 사냥꾼, 활, 썰매, 스키, 농기구, 북, 소고, 상모, 고깔, 망태기, 짚신, 설피, 고로쇠스키, 뗏목, 워낭, 종, 코뚜레, 물동이, 아리랑
평창의 문화 유적 소재
석탑(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수항리사지 3층석탑, 탑동 3층석탑, 유동리 5층석탑) 사찰(월정사, 상원사 등), 동종, 탕화, 목어, 동굴(백룡동굴, 광천동굴), 바위, 불상, 청심대

〔표 6〕 평창 이미지 소재 분류

디자인 모티브 소재 개발 활성화에 있어서 [표 6]에서 제시한 이미지 소재를 반영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찾아 기념품에 적용하여 문화가 배경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념품은 기념품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되어 문화적 가치를 함께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소재 예시를 지역적 특성별로 네 가지를 예시 하여 본다. 첫째, [그림1]은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에 새겨진 비천상과 당좌연꽃문양을 벽걸이로 제작한 기념품 예시이다. 현재 오대산 월정사 기념품



〔그림1〕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에 새겨진 비천상과 당좌연꽃문양을 벽걸이로 제작한 기념품 예시

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종 조형물은 에밀레종의 형태

를 하고 있어 자칫 일반인들은 잘못 이해 할 수도 있어 정확한 형태의 기념상품 개발로 동종의 형태와 문양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성을 느낀다.

둘째,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호 둔전평농악놀이를 보면 농악은 놀이, 노래, 무용이 혼성된 종합예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농부들의 농경생활과 놀이문화를 잘 보여준다. 평창지역의 둔전평농악의 문화적 배경은 궁궁소, 진전동, 만세등, 호랑바우, 용바우, 거북바우, 백옥포리, 대봉암, 장군, 도사리, 화선바우, 석도독골, 피난골, 말구리재, 구룡소, 속사리 등 평창지역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도 남아 있다. 둔전평의 뜻은 '밭을 일구어 먹는다'라는 뜻이다.(김선풍,장정룡,김경남2008) 둔전평 풍물은 산간형 민속놀이로 다른 도에서 볼 수 없는 신기(神旗)춤이 있어 돋보인다. 농악대가 쓰는 병거지 모자는 주민들이 겨울동안 직접 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둥글게 감아서 만든다. 병거지 끝부분에는 붉은색 종이꽃을 단다. 둔전평농악에 타 지역에 없는 특징은 한 대원이 다른 한명의 어깨위에 올라타는 단동고리받기와 대원들이 한명씩 어깨위에 올라타서 3층을 만드는 삼동고리받기가 특징이다.



〔그림2〕 둔전평농악놀이에 구성된 단동고리받기, 삼동고리받기 형태의 이미지 예시

〔그림2〕에서 보듯이 둔전평농악에서 유일한 특징인 삼동고리받기 형태이미지는 석탑의 이미지와도 유사하여 기념비적인 모티브로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 소재로 본다.

셋째,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9호 황병산사냥놀이는 강원도의 겨울철 산간문화에서 발생한 자연발생적 수렵놀이이다. 총포를 사용하기 이전 과거의 사냥을 하는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강원도 민속놀이로서 겨울철 사냥습속을 재현한 유일한 것으로 잊혀진 수렵생활을 다시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김선풍,장정룡,김경남2013) 사냥에 사용된 150년이 된 버들잎 창, 100년이 넘는 썰매가 보존되어 있으며 놀이에 이용하는

도구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는 전통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만든 설피, 주루막, 털 귀마개, 벗짚각반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황병산사냥놀이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보여줄 가장 강원도의 생태를 담은 산간 집단놀이로서 인류와 자연의 상생문화를 보여주는 놀이로 문화적 가치는 평창을 대표할 수 있다.



〔그림3〕 황병산사냥놀이에 사용되는 멧돼지와 사냥 도구 형태의 이미지 예시

〔그림3〕은 전통적인 오래된 수렵문화에서 볼 수 있는 도구들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한 형태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예시이다.

넷째, 평창의 자연 소재 이미지 중에서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받아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학술연구로서의 가치가 높다. 1976년 주민들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세부 조사를 거쳐 2010년 생태체험학습장으로 개장하였다. 백룡동굴은 동굴 속에 서식하는 박쥐와 조명 장치가 없는 곳이므로 눈이 퇴화된 눈 없는 민물새우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종유관, 종유석, 석순, 동굴방패가 있다. 백룡동굴을 가기 위해서는 학습장에서 배를 타고 1km 가량 동강을 건넌다. 미탄면 마하리 마을에서는 흔들다리를 만들어 다리를 지날 때 배가 물살에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체험을 하기도 한다.



〔그림4〕 멧과 목도꾼 이미지 형태 이미지 예시

백룡동굴과 동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은 그 형태 자체로도 관광기념품의 모티브 소재로 충분하며

[그림4] 는 한강의 발원지 중의 하나인 오대산 줄기 오대천에서 동강을 지나 한양까지 이동하던 뗏목을 짓는 목도꾼의 이미지이다. 뗏목은 과거 진부면 두일리 목도꾼들이 목재를 실어 한양까지 나르던 운송수단으로 뗏목 타기 행사는 2007년 진부면 산꽃약풀축제에서 체험을 하였으나 현재는 미탄면 마하리 동강에서 뗏목 타기 체험을 하고 있다. [그림4] 의 뗏목과 목도꾼의 이미지는 오대천과 동강을 연결하는 것으로 평창, 영월, 정선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미지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시한 네 가지 모티브 이외에 평창의 유형·무형문화자원 소재 속에서 시각적 형태와 기념비적인 모티브를 찾아내면 관광기념상품으로 개발할 디자인 소재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평창의 자연 생태 소재들은 강, 산, 동굴 속에서 전래되는 이야기와 함께 캐릭터 연구와 스토리텔링을 겸하면 문화상품 소재 개발은 다양하게 활성화 될 것이다.

3.3.2 디자인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상품을 관광기념품으로 출시하기까지는 문화적 요소가 적용된 디자인과 제조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념비적인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 연구 단계로만 그쳐서는 연구내용이 기록적 의미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된 디자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는 평창지역에서의 공예관련 상품 제조업체, 지역특산품 제조업체, 광고 홍보물 디자인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기념품과 지역특산품에 지역의 문화적 의미를 적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여야 한다.

첫째, 관광기념상품 제조업체 세미나 및 디자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평창군 지역에는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이 없는 관계로 인근 지역인 강릉, 원주, 삼척, 춘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디자인을 연구 하고 있으나 그 실적 또한 미미하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할 지역 업체들의 디자인 감각은 타 도시들의 디자인에 비해서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여 전문디자이너들이 연구한 문화상품 모티브들은 지역의 생산업체에 디자인 컨설팅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고품격의 디자인 제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이 개발된 디자인은 순차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재료와 소재 별, 기능과 기술별로 제조업체들을 분류하여

디자인 컨설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예 디자인 상품제작자에게 전문적인 디자인 교육이 필요하다.

평창지역은 디자인에 관련된 광고업체는 22곳이고, 광고협회 회원은 12명으로 디자인을 생업으로 하는 연구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공예상품을 제조하는 공방은 목공예와 야생화 압화, 비누공예, 짚풀공예, 등이다. 미술전문단체는 1997년 평창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6명으로 구성된 예연회를 시작으로 명분을 유지하였다가 2012 평창미술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30여명의 회원이 있다. 작가들은 대부분 작가고유의 창작활동을 하며 일부 작가들은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평창지역은 대학이 없고 연구기관은 농업과 생태환경에 관련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디자인상품 개발은 미술 공예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 지역에서 전통공예를 이어 오거나 노인들이 농가에서 제작하는 민속품들이 관광기념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다양한 소재 개발 및 현대적인 재료 개발이 필요하다.

평창의 관광기념품의 현대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평창의 공예업체, 기념품을 만드는 시니어클럽, 마을단위에서 만들고 있는 평창이 세계화가 될 시점에 내놓아야 할 기념품들은 디자인 소재 및 현대적 감각이 현저히 낮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그들이 만든 기념품들은 외면당하기도 한다. 짚풀 공예, 농기구, 전통놀이와 같은 기념품을 제작하는 재료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의 한계가 있고 실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실물 크기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관광상품디자인 개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평창의 문화관광자원을 모티브로 개발된 디자인 소재들은 지역의 생산업체나 평창을 소재로 관광기념품의 제작을 준비하는 타 지역의 생산업체들에게도 디자인 소재가 되어 관광기념품으로 사용하게 한다. 평창의 이미지들은 관광기념품으로 주로 생산하는 마그넷, 열쇠고리, 장신구, 인형, 휴대폰 줄, 가방, 함, 명함케이스, 액자, 노트, 책갈피, 부채, 메모꽂이, 테이블장식품, 연필, 시계, 지갑, 벨트, 주머니, 쿠션, 향꽃이, 베게, 접시, 거울, 향수, 컵, 향아리, 테이블 보, 목걸이, 우산, 핀, 조명등, 차시, 건강용품,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에 문양 및 형태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전문가들이 소속된 단체나 대학의 소속기관과 협력을 맺어 디자인 소재들의 발굴과 디자인 모

티브를 개발한다면 상품의 문화적 가치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했던 상품들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상품제작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관광기념상품으로 거듭날 것이며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독창적인 상품개발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본다. 독창적이며 지역의 특색을 잘 표현한 새로운 디자인의 발굴은 많은 신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섯째, 개발된 디자인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자인 소재 개발은 기관에서 협력 지원하여야 하며 개발된 소재가 지역의 공예업체 및 디자인 업체가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지역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공통으로 활용하여 홍보물 및 상품 광고 등에 적용함으로써 문화관광상품의 인지도도 향상시키고 각 관련 업체들마다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관광기념상품이미지, 광고이미지, 홍보물, 안내물 등을 통해 접하게 된다면 짧은 시간에 문화 향유의 경험을 갖게 된다. 또한 외국인들에게는 언어적 소통보다는 시각이미지가 더 빨리 전달되므로 시각화 된 상품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빠른 시간에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

여섯째, 평창의 8개 읍, 면의 문화자원의 특성들을 살린 기념품제작이 필요하다.

평창은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은 자연환경으로 최적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영동고속도로 인접지역은 관광자원의 활성화와 더불어 차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영향을 받지만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관광특구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관광상품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창전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이 모티브가 되어서 관광지마다 상품으로 보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광기념상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평창의 8개 읍, 면의 문화자원의 특성들을 살려 기념품제작을 한다면 기념품을 통해 평창전체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을 통해 평창이 안고 있는 열악한 디자인의 문제점을 빠른 시일에 극복하여 지역에서 제조하는 공예, 디자인 관련 업체들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기념품을 제작한다면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연구의 역할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제 평창지역의 디자인 관련업체들은 앞에서 제시한 평창의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평창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들의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적인 큰 행사를 앞둔 시점에 고급문화로 성장시키는 위해서는 지역의 관광기념품 생산업체에서는 보다 나은 연구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탐구하여 문화적 요소들을 발굴함으로써 관광기념상품에 적용 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 강한 문양 및 캐릭터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공예품 제작자나 디자이너가 연구해야 할 당면 과제는 문화자원을 연구 분석하고 그 의미를 후대에게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남게 됨을 인식하고 잊혀져가는 지역문화자원을 창의적 감성 디자인으로 시각화시키고 디자인에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현대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도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자원이 소재가 되어 전문성 있는 디자이너들의 감각이 깃들어서 기존의 전통성이 강했던 상품에 현대적 조형성을 갖춘 새로운 상품으로 제작된다면 평창의 관광기념상품도 굿 디자인으로 성장될 것이다. 21세기의 경제와 문화의 키워드는 창의적 디자인을 슬로건으로 한 감성중심의 디자인 경영이라 말할 수 있다. 감성디자인은 기업의 생산품만이 아닌 공공기관, 교육기관 할 것 없이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감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문화적 요소이며, 오래된 역사가 바탕이 된 문화일수록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더욱 더 다양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만든다. 평창도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감성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반영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만족스럽게 할 때이다. 평창지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평창을 방문하게 되며, 이는 평창이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그 방문객들의 손에 평창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담겨져 있는 기념품을 안겨 줘야하는 역할 또한 디자이너들의 몫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창은 관광의 중심이 될 만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 자원은 다양하게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연조건은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발굴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제시한 바와 같이 관광

기념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문화적 요소가 소재로 되는 기념상품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평창지역의 특산품의 대부분은 같은 종류의 농산물과 가공식품들로 이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념품판매점의 운영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연구 및 디자인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함을 결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본 연구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상품 디자인 개발을 활성화 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잊혀져가는 지역의 전통문화원형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지킴이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독특한 특성을 시각적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특성상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의 독특함을 관광기념상품디자인에 적용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디자이너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고유하고 다양하며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관광기념상품으로 개발 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관련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업체 디자이너들에게도 창의적인 지역문화 관광기념상품의 모티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2013). 『江原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平昌郷校』. 강원도.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 平昌郡』. 江原文化財研究所.
- 김경진, 최산 (2014). 사찰에 나타나는 꽃살문을 활용한 Fashion Jewelry Design : CAD Design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42.
- 김보라 (2012). 「지역마케팅을 위한 지역 아카이브즈 설립 방안 연구 : 평창군을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석사논문.
- 김선풍, 장정룡, 김경남 (2008). 『평창둔전평농악보 존회』. 도서출판 보고서.
- 김선풍, 장정룡, 김경남 (2013). 『평창황병산사냥민속』. 국학자료원
- 문화재청 (2013). 『강원권 문화유산과 그 삶의 이야기 :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이야기자원 발굴연구』. 문화재청.
- 매일경제연구소 (1997).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디자인

인개발 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 박미현 (2008). 『강원무형문화재 전승의 주역들』 강원도민일보.
- 박지민 (2012).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 손현아 (2009).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 개발 및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 송하영 (2013). 조선 민화의 연화(蓮花)를 활용한 드레스용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 양순영, 임혜숙 (2013).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개발 방안 연구 - 강릉의 역사 인물 난설헌 허초희 작품을 중심으로 - . 『한국디자인포럼』, 9, 133~142.
- 평창문화원 (1986). 『平昌邑誌』. 平昌文化院.
- 월정사 (2001). 『강원도 불교문화재의 종합적 검토』. 月精寺 聖寶博勿館.
- 대관령국제음악제 http://www.gmmfs.com/program_kor/korIndex.asp
- 오대산문화축전 <http://woljeongsa.danah.kr/>
- 평창군청 <http://www.happy700.or.kr/pcmain/pcmain.asp>
- 평창군문화관광 https://www.yes-pc.net/main_page/main.asp
- 평창송어축제 <http://www.festival700.or.kr/>
- 평창포탈신문 <http://pcpt.kr/korea/pc.htm>
- 효석문화제 http://www.hyoseok.com/2013_new/main/main.asp